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간호사 부족문제 해결 정부가 나서야

간호수가 현실화 ... 간호사 이직방지 대책 촉구

보건복지위 국감 현장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간호수가를 현실화하고,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정부 차원에서 힘을 쏟아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양승조)가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환자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간호사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종필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10월 4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감에서 "적정수준의 간호사 확보는 임원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며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필수"라면서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하며, 특히 인력산정기준을 현행 병상수에서 임원환자수 대비 간호사수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간호사 부족문제가 지역별로 양극화 돼 있는 만큼 지방중소병원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간호수가 차등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손명세 심평원장은 "간호인력 산정기준을 임원환자수 대비로 바꾸는 것을 연구검토 중에 있다"면서 "지방중소병원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선 보건복지부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윤종필 의원은 "간호사는 의료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력자원이데 비해 임원료 중 간호관리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25%에 불과하다"며 "환자안전과 밀접한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간호관리료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경우 간호·간병료 수가가 현장에서는 체감효과가 적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간호관리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윤종필 의원은 특히 "간호대학 정원을 늘리는 것이 간호인력 부족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간호사들이 이직하지 않고 오래 일하고, 유류간호사들이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마련에 보건복지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9월 2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간호관리료가 임원료에 포함돼 있어 독립적인 상대가치점수를 부여할 수 없고, 야간·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이 불가능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선 간호사 인건비가 간호관리료 및 간호수가에 반영되는 건강보험지불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최근 SBS 스페셜에서 방영된 간호사의 대응 문화 등은 본질적으로는 간호사 부족문제"라며 "인력부족은 간호사에게도 고통이지만 결국 환자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업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사 부족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면서 "간호관리료 개선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올해 국정감사는 야당이 여당과 합의 없이 강제수용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데 반발해 새누리당이 국감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며 반쪽짜리 출발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새누리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9월 26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감을 시작했으며, 새누리당 의원들은 10월 4일부터 국감에 복귀했다.

김숙현 기자 shkim@koreanurse.or.kr

신생아중환자실 간호등급 최상등급 신설

미숙아·신생아 진료 보장 강화방안 의결

초극소저체중 출생아 치료를 담당하는 종합병원 이상 신생아중환자실 간호등급에 최상등급이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미숙아·신생아 진료 보장 강화 및 분만인프라 지원을 위한 수가 개선방안',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에 따른 급여 확대방안' 등을 의결했다.

미숙아·신생아 중환자실 이용시 발생하는 비급여 부담을 완화하고 집중치료가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초극소저체중(1000g 미만) 출생아 치료를 주로 담당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이 강화된 인력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개설했다.

합병증 발생 및 사망위험이 매우 높은 초극소저체중 출생아의 경우 많은 인력을 투입해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현행 신생아중환자실 간호등급제는 추가적인 인력투입에 대한 보상이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신생아중환자실 간호등급을 4등급에서 5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최상등급을 신설했다. 기존 최상등급은 1개 병상당 간호인력 1명 배치(1:1)였지만, 개선된 최상등급은 1개 병상당 간호인력

1.5명을 배치(1:0.75)해 중증 신생아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개선된 등급별 간호사당 병상수 및 수가 가감률은 다음과 같다.

△1등급=1:0.75미만(4등급의 45%) △2등급=1:0.75이상~1.0미만(4등급의 30%) △3등급=1:1.0이상~1.5미만(4등급의 15%) △4등급=1:1.5이상~2.0미만 △5등급=1:2.0이상(4등급의 -25%).

또한 신생아실 임원료를 질병 없는 신생아와 질병 있는 신생아 임원료로 세분화하고, 질병 있는 신생아의 임원료를 더 높게 개선해 진료 난이도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신생아 다빈도 호흡기 바이러스 8종 검사에도 급여가 적용되며, 신생아들이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고성능 보육기, 고빈도 진동 인공호흡기 등 장비비 및 소모품 비용을 수가에 반영했다.

이밖에 이날 건강심에서는 분만 산부인과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임신부가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수기도 개선키로 했다. 4대 중증질환도 주요 검사방법 등 18개 항목을 급여화하기로 결정했다.

주혜진 기자 hjoo@

결핵관리전담간호사 배치 사례관리 효과

결핵 신환자 발생 매년 감소 ... 치료성공률 향상

결핵 신환자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민간·공공협력력을 통한 국가결핵관리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며 민간 의료기관에 결핵관리전담간호사를 배치하는 등 철저한 사례관리를 한 결과다.

질병관리본부는 민간·공공협력력을 통한 국가결핵관리사업을 추진해온 결과 결핵 신환자율이 지속 감소하는 등 사업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결핵 신환자수는 2011년 인구 10만명당 78.9명으로 보고된 이후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결핵 신환자는 3만2181명(10만명당 63.2명)으로 2014년 3만4869명(10만명당 68.7명) 대비 8.1% 감소했다.

도달양성 결핵 신환자 치료성공률도 2012년 79.8% 대비 2015년 83.8%로 향상됐다.

이는 결핵관리전담간호사 등을 배치해 신고된 결핵환자가 성공적으로 치료를 완료할 수 있도록 복약확인, 결핵교육 등 철저한 사례관리를 한 결과 일관된 성과로 볼 수 있다.

현재 민간의료기관 128곳에서 결핵관리전담간호사 210명이 활동

하고 있으며, 시군구보건소 255곳에 결핵관리요원 209명이 배치돼 있다.

결핵관리전담간호사는 2009년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이 시행되면서 배치되기 시작했다. 결핵환자의 치료중단을 사전예방하고 결핵 완치율을 높이기 위해 전담간호사를 배치해 사례관리서비스를 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결핵으로 진단·치료받은 환자들이 치료를 무시하 미칠 수 있도록 보건교육 및 상담, 복약확인, 주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2016년 민간·공공협력 국가결핵관리사업 연찬회'를 열어 그동안의 국가결핵관리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문화식 민간·공공협력(PPM) 결핵관리사업단장은 "민간·공공협력의 구성을 통해 민간의료기관의 치료 비순응 결핵환자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보건소와 협조체계를 마련한 것은 우리나라 결핵관리체계의 발전적인 변화"라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oo@

국민 노후생활 준비 지원 '국가노후준비' 구성

국민들의 노후생활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노후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국가노후준비위원회는 고령화 심화 및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 은퇴에 따라 국민들이 사전에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추진됐다.

위원회는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공무원, 노후준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됐다. 앞으로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국민들의 노후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제1차 노후준비 지원 5개년(2017

~2021)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노후준비 지원 기본계획에는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반방향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재무, 건강, 여가, 대안관계 등 영역별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될 계획이다.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국가노후준비위원회를 기반으로 국민들의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개발하고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oo@



2017년부터 소멸예정

대한간호협회 회원복지포인트 자동 소멸예정 안내

2014년도분 회원복지포인트가 2017.1.1부터 순차적으로 소멸예정입니다. 포인트 미사용 회원분들은 자동 소멸되지 않도록 소멸일자 전에 포인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Nurselife | www.nurselife.or.kr

신발도 과학이다. 이제 건강을 신자!

발 피로를 풀어주는 세계적인 특허제품인 NABE 간호사 건강신발을 착용하셔야 합니다.

국내특허 제0239854호

NAVER 검색창에 **나베간호화** 를 쳐보세요

2011년 신제품
기능성 벨크로타입 출시

•NB-C05
- White
- 소재 : 합피, 소 가죽
- size : 225~250mm
- 가격 : White ₩34,000

2컬레 이상 주문시 : 10% 할인

•NB-N02(샌들)
인조가죽 ₩30,000
Size : 225~250

•NB-N01(샌들)
인조가죽 ₩30,000
Size : 225~250

•NB-C03(캐주얼)
White ₩40,000
천연 소가죽
Size : 225~250

•NB-C01(캐주얼)
White ₩34,000
고급 인조 가죽
Size : 225~250

런닝화 HSO11
네이버 소재 : 소가죽, 에어메쉬
Size : 225~280mm
150,000 → 95,000

런닝화 HSO10
흰색/분홍색 소재 : 소가죽, 에어메쉬
Size : 225~255mm
150,000 → 95,000

•NB-C02(고급형 캐주얼)
Black ₩60,000
천연 소가죽, 돈피
Size : 225~250

신제품(고급)

•NB-SW01(여성용 샌들)
Black / Beige 내피 : 소가죽 외피 : 고급인조가죽
Size : 225~250 ₩40,000

•NB-C07(캐주얼)
진반색 ₩60,000
천연 소가죽
Size : 225~250

남성용 구두 NB-MD02
Brown 소재 : 소가죽
Size : 245~280mm
140,000 → 60,000

스니커즈
Black/White 소 재 : 최고급 소가죽
Size : 225~280mm 180,000 원

5컬레 이상 주문시 : 10%DC
10컬레 이상 주문시 : 15%DC
20컬레 이상 주문시 : 20%DC

24시간 상담 및 주문 : 본사(02)522-4813, (031)8015-4814 www.NABE.co.kr

(입금계좌번호) 농협 : 081-01-061915 서시현

(주)나눔과제품
THE ULTIMATE LEG TRAINING SYSTEM